

## ■ 2025년 문학레지던시사업 심의 총평

- 심의대상 : 2025년 문학레지던시사업 (호텔프린스, 남이섬, 협성마리나G7)
- 회의일시 : 2025년 4월 25일, 14:00- 16: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2층 세미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문태준, 송수연, 심진경, 윤고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서울 프린스호텔이 10년 넘게 함께 해온 문학레지던시사업 '소설가의 방'은 늘 많은 작가들의 관심의 대상이었다. 명동 한복판이라는 장소는 저자에서 태어난 소설의 운명을 보여주는 듯 상징적이며, 이곳을 거쳐 간 작가들의 창작에 큰 보탬이 되었다. 다만 '소설가의 방'이라는 이름이 보여주듯 소설이라는 장르에 한정되었다는 점, 그리고 입주를 원하는 작가의 수에 비해 한정된 규모라는 점이 늘 아쉬움으로 남았다. 올해는 남이섬과 협성마리나G7이 이 사업에 동참함으로써 다양한 장르의, 보다 많은 작가에게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은 이구동성으로 기쁨과 감사를 표현했다. 무엇보다 창작활동 이후 3년 이상(협성마리나G7), 10년 이내(호텔 프린스), 10년 경과(남이섬)로 나누어 작가를 선정, 작가의 창작에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새로 마련된 점은 상당히 고무할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했다.

올해 11년차에 접어드는 호텔 프린스에는 25명의 작가가, 신규인 남이섬에는 10명이, 협성마리나G7에는 38명의 작가가 지원, 총 73명의 작가가 본 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혔다. 심의위원들은 심의기준과 심의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심의를 진행했다. 작품집 발간을 앞둔 작가들의 안정적인 집필 활동을 후원한다는 사업취지에 맞게 앞으로 활발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작가를 선정하기 위해 심의위원들은 지원신청서와 발간 계획 및 첨부 작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작가의 예술창작능력과 향후발전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류와 더불어 첨부된 작품을 세밀하게 읽었고, 레지던시 사업에 적합한 작가를 뽑기 위해 노력했다.

1차로 심의위원 개별 평가를 거친 후, 2차로 대면심사를 가졌다. 2차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은 작가들을 중심으로 개별 심사과정에서 혹시 놓친 부분은 없는지, 심의위원 각자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점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2차에 걸친 심의를 통해 남이섬 2명, 호텔 프린스 6명, 협성마리나G7 7명, 총 15명의 작가를 선정했다.

지원작가들의 서류와 작품을 보면서 이 사업을 향한 작가들의 기대가 크다는 점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자연스레 지원한 작가들 모두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하지만 새로운 사업주체의 참여로 다양한 장르의 더 많은 작가들이 선정될 수 있었다는 점은 거듭 말해도 기쁜 일이다. 오랫동안 소중한 공간을 내어준 호텔 프린스와 새롭게 참여해준 남이섬, 협성마리나G7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선정된 작가들에게 축하와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

심사위원 일동